

경제

3억원짜리 아파트 취득세

올해 300만원 내년엔 600만원

50% 감면조치 연말 종료...부동산시장 비상

주택 취득세 50% 감면조치 종료가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는 가격이나 부진한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며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장을 촉구했다.

2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해 취득세 감면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럽 재정 위기와 미국 경기침체 등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국내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세계 혜택

마저 줄어들면 침체한 주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법정세율로 취득가액의 4%를 내야 했던 취득세는 지난 1월부터 감면안이 시행돼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2%만 내면 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3·22대책이 발표되면서 감면 폭이 확대돼 연말까지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로 다시 줄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나 다주택자도 4%에서 2%로 줄었다.

이같은 감면안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취득세가 3·22대책 이

전처럼 다시 2~4%로 돌아가게 된다. 3억원짜리 집을 매입할 경우 연말까지 300만원 가량의 취득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취득세율이 환원됨에 따라 6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오르기 때문에 세부담이 수천만원 늘 수 있다.

취득세 부담이 다시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광산구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중 가장 비중이 커 취득세가 환원되면 최소 수백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수요자들에게는 세금이 종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테

니 거래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토해양부도 고민에 빠졌다.

취득세 감면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자체가 세수 부족으로 반발하고 있고, 3·22 대책에서 취득세 세수 감소분을 정부가 전액 재정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던 만큼 정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장을 고집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날 저녁 뜨거운 대추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 가을이 참 따뜻하다'고 감동했다. 그리고 '사람 사는 일은 모를지기가 이래야 된다'며 내 인생에 감사했다.

따뜻한 것들이 좋아지는 계절이다. 이제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물 한 그릇쯤 있어야 한다. 그러하니 차 역시 당연지사다. '포차'를 재운다. 땀자차를 담아야겠다. 마음만 부산하다가 동생네 마당 대추를 받고서야 '차 만들기'가 시작된다. 생각은 동네 할머니가 주셨고 도라지는 옆집 시누이네 것이며 배는 나주에 사는 지인의 선물로 모두가 협찬으로 이뤄졌다.

그림 간단하지만 곱국처럼 든든하고 따뜻한 가을 차 만드는 법 소개하겠다. 먼저 주인공은 대추다. 레서 피는 초 간단! 먼저 대추를 넣고 약한 불로 끓이다가 대추 살을 으개고 다시 끓여 물이 반으로 줄면 건더기만 건져 짜내면 완성이다. 취향에 따라 꿀을 몇 스푼 넣고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끓인 물에 타 마시면 되는데 진하게 먹고 싶은 분들은 그대로 데워 드셔도 된다.

이제 주연 소개가 끝났으니 조연들을 소개하겠다. 대추에 생강을 넣어 함께 끓여 보시라. 향이 더 맛있



■ 대추차 한 잔, 어떠세요?

마당에서 낙엽을 태우던 신랑이 텃밭에서 일을 하던 뒷집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뽀얀 배추 몇 쪽과 무 두 개가 바로 내 부엌으로 배달된다. 받기만 하는 것이 미안해 진하게 디린 대추차 한 잔을 드리니 이번엔 김치 담으라며 열무 한 다발을 주신다. 사실 대추차 역시 여기저기서 준 것으로 만든 것이고 그 마음으로 다시 나눠 먹다 보니 결국 선물 릴레이로 이어진다. 나는 가져 온 무와 생강, 그리고 배추를 새로 이사 온 이웃과 나눴고 그 이웃은 우리 집에 화장지를 통째로 건네주는 것으로 하루 릴레이는 결국 끝이 났다.

그날 저녁 뜨거운 대추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 가을이 참 따뜻하다'고 감동했다. 그리고 '사람 사는 일은 모를지기가 이래야 된다'며 내 인생에 감사했다.

따뜻한 것들이 좋아지는 계절이다. 이제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물 한 그릇쯤 있어야 한다. 그러하니 차 역시 당연지사다. '포차'를 재운다. 땀자차를 담아야겠다. 마음만 부산하다가 동생네 마당 대추를 받고서야 '차 만들기'가 시작된다. 생각은 동네 할머니가 주셨고 도라지는 옆집 시누이네 것이며 배는 나주에 사는 지인의 선물로 모두가 협찬으로 이뤄졌다.

그림 간단하지만 곱국처럼 든든하고 따뜻한 가을 차 만드는 법 소개하겠다. 먼저 주인공은 대추다. 레서 피는 초 간단! 먼저 대추를 넣고 약한 불로 끓이다가 대추 살을 으개고 다시 끓여 물이 반으로 줄면 건더기만 건져 짜내면 완성이다. 취향에 따라 꿀을 몇 스푼 넣고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끓인 물에 타 마시면 되는데 진하게 먹고 싶은 분들은 그대로 데워 드셔도 된다.

이제 주연 소개가 끝났으니 조연들을 소개하겠다. 대추에 생강을 넣어 함께 끓여 보시라. 향이 더 맛있

온몸에 스며드는 훈훈한 기운 곱국처럼 든든하고 따뜻해요



강하다. 추가로 배를 썰어 넣으면 단 맛이 돌아 꿀이 꿀을 넣지 않아도 훌륭하니 참고하시길.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이나 기관지가 약하다 싶은 분들은 도라지도 함께 넣으면 좋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도라지를 못 먹던 아이들까지도 잘 먹으니 일석이조다. 참 도라지는 소금물에 담가 쓴 맛을 우려서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한 병 더 소개하자면 부엌에서 흔히 버리는 과 뿌리! 잘 씻어 두었다가 차를 달일 때 함께 넣어도 괜찮다. 감기나 기관지에 좋은 재료이니 무조건 버리지 말고 모아 두면 유용하다.

하여간 이렇게 우린 차는 대추 때문에 상당히 짙게 해진다. 내 경우 슬로 쿠커에 4시간을 놔둬서 차도 아니고 죽도 아닌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내 생각엔 이 정도는 되어야 속까지 든든한 맛이 된다. 가끔은 저녁을 진한 대추차로 대신하기도 하는데 그런 날은 잠도 솔솔 잘 온다. 알고 보니 대추에 불면증에 좋은 성분이었다고 하고 그 외에도 혈액순환이나 약 해독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쯤 되면 약이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무척이나 심하다. 난방비 아깝다고 보일러를 켜놓더니 둘째 아이가 코가 답답하다. 코감기에 걸린 것이다.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키고 생강 넣고 뜨겁게 끓인 대추차 한 잔을 먹인다. 푹 자고 나면 한결 나아질 것이다. 그 훈훈한 기운이 온 몸으로 스밀 것이기에.

◀'땀자차' 열 두 달 '살림' 저자 jzzchants@hanmail.net

은행 현금지급기서 대부업체 인출 중단

은행 현금지급기(ATM)를 이용한 대부업체의 무인대출서비스가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에 대해 결제대행업체(VAN)가 위탁운영하는 ATM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ATM 기기에서 은행 업무뿐 아니라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까지 제공될 경우 고객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부관련 서비스를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VAN사들이 운영하는 ATM 중 2만여대가 대부업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올겨울도 어그부츠로

어그부츠의 계절이 돌아왔다. 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마지막 매장에서는 겨울철 패션 아이템 중 하나인 앙퐁 어그부츠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올 해 어그부츠의 트렌드는 길이와 스타일이 다양하고 색상 또한 차별화를 둔 것이 특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어그부츠의 계절이 돌아왔다. 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마지막 매장에서는 겨울철 패션 아이템 중 하나인 앙퐁 어그부츠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올 해 어그부츠의 트렌드는 길이와 스타일이 다양하고 색상 또한 차별화를 둔 것이 특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신용대출 금리 금융위기 이후 첫 7%대

가계대출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반적인 가계대출 금리도 고공행진 중이어서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은행들의 지나친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 3년만에 7% 넘었다= 2일 은행권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81%였던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9개월 만에 무려 1.25%포인트나 뛰어올라 올해 9월에는 7.06%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금리가 7%대로 뛰어오른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신용대출은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일반신용대출과 집담대출로 나뉘는데,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2008년(8.44%)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8%대로 뛰어올라 9월 8.27%를 기록했다.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총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5.35%였으나, 올해 9월 말에는 5.86%에 달해 9개월 만에 0.51%포인트나 뛰어올랐다.

◇대출억제 빌미로 금리 대폭 인상 = 신용대출 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억제를 통한 은행들의 의도적인 대출금리 인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은행대출 전반의 금리 추이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가계대출 억제 후 은행들이 앞다퉀 대기업 대출에 나서면서 9월 한달에 만 대기업 대출은 3조원 넘게 늘었다. 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리는 8~9월 0.21%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9월 증가액이 6235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가계대출이 억제되자 은행은 가계대출 시장의 주도권을 쥌 수 있었다. 그 결과 가계대출 금리는 8~9월 0.2%포인트나 올랐다.

문제는 은행들의 지나친 대출금리 인상이 가계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가계대출의 연체는 경기에 후행하는 속성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말에 발생했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치솟았던 시기는 6개월 후인 2009년 2분기였다. /연합뉴스

하이트진로 올 수출 사상 최대

3분기까지 1억715만달러

하이트진로는 올해 3·4분기까지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30.3% 증가한 1억715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전체 수출 실적인 1억708만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주중별로 소주가 4178만 달러, 맥주는 5489만 달러, 막걸리는 1048만 달러 여치를 수출했다.

작년과 비교해 소주는 2.5%, 맥주는 48.9%, 막걸리는 127.6% 각각 증가한 것이다.

하이트진로의 수출 성장세는 최대 시장인 일본에서 맥주와 막걸리 판매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특히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진로막걸리'는 1041만 달러 어치가 수출돼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37.6% 성장률을 보였다.

진로막걸리는 작년 일본에 70만 상자를 수출한 데 이어 올해 3·4분기까지 99만 상자를 팔아 연간 목표인 120만 상자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맥주의 경우 8월 일본 최대 유통업체에 연간 4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15년 수출액 2억 달러를 넘겨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부영 신창3차 분양가 500만원 인상 철회

분양가 갈등을 빚어 왔던 광주시 광산구 신창3차 부영아파트 사태가 회사측의 분양가 인상 방침 철회로 일단락됐다.

2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구)과 부영연대 등에 따르면 부영건설이 신창3차 부영아파트 분양가 500만원 인상 방침을 철회해 지난달부터 계속돼 온 갈등이 해소됐다.

이번 분양가 인상 철회 결정으로 신창3차 부영아파트 520여 세대는 이미 분양받은 세대와 같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인상된 금액으로 분양받은 일부 세대도 500만원을 되돌려받게 됐다.

부영아파트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대아파트였던 전체 1792세대에 대한 분양을 추진해 1271세대 분양을 마쳤으며 최근 시세 상승을 이유로 분양가를 500만원 인상해 미분양 세대의 반발을 샀다.

이번 결정은 이용섭 의원이 부영건설 회장과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등	500만원 X 20년	5조 2 9 8 7 1 7
		6조 7 1 3 2 7 4
2등	100,000,000	5조 2 9 8 7 1 6
		6조 7 1 3 2 7 3
3등	10,000,000	6조 7 1 3 2 7 5
		7 4 2 6 0 5
4등	1,000,000	7 5 6 8 8
		6 5 8 8
5등	200,000	1 4
		5 8
6등	2,000	8
		8
7등	1,000	6
		6

광주·전남 주식거래량·대금 모두 증가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2011년 10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거래량은 5억3091만주(전달보다 5.99%(3003만주), 거래대금은 4조4615억원으로 17.48%(6637억 원) 각각 증가했다.

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거래량 부문에서 2.65%(9월 2.53%), 거래대금 부문에서 2.11%(9월 1.97%)로 전달보다 모두 늘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98.01** (-11.62)
- 코스닥지수 **493.49** (+1.13)
- 금리(국고채 3년) **3.47%** (-0.01)
- 원·달러 환율 **1,121.80** (+7.8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 선풍적인 인기

밝기는 2배!! ★ 전기료는 절감!! ★ 눈부심 방지로 확실한 시력보호!!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특징

- 1.쉬운설치, 저렴한 설치비용
- 2.가시광선의 전영역을 반사(조명의 질적향상)
- 3.최대 50~100%의 조도감상
- 4.전기요금 최대 50%절감
- 5.눈부심 차단효과로 시력보호기능
- 6.자외선 차단효과로 피부노화방지
- 7.친환경제품(PP,PET소재로 100% 재활용 가능)
- 8.번식이나 오염이 없는 반영구적인 제품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설치장소

광주지역 : 한빛고시원, 갤러리존, 대림물류센터, 청연한방병원, 텃밭, 양동시장 외 200여곳
 기타지역 : 송파도서관, 제주한화리조트, 인제대학교, 우체국, 오뚜기, 이마트성수점
 홈플러스 강서점, 7000마트, 롯데마트, 서울대학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인천국제공항.

형광등용

디오라이트용

삼파장용

애코반사캡

DIY세트

(주)우림네트웍스
062-251-9792
 www.donbandi.com